

치킨값 올린 프랜차이즈, 납품가도 인상... 가맹점주 '한숨'

BBQ·bhc 등 최근 제품가격 인상
작년 업계 빅3 모두 실적개선에도
가맹점 원부자재 가격 동시 인상

“제품가·납품가 동시 인상하면
가맹점 수익 줄고 본사이익 구조”

역대 최고 실적과 치킨값 인상에도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BBQ는 지난 2일 사이드 메뉴와 주
류·음료를 제외한 제품 가격을 2000원
인상했다. 대표 메뉴 ‘황금올리브’는 1
만8000원에서 2만원이 됐다. 지난해 교
촌치킨과 bhc도 가격 인상을 단행한
바 있어 치킨값 2만원 시대가 본격 열
렸다.

BBQ 측은 인건비와 배달료 상승, 배



달업 이용 증가에 따른 수수료 부담, 임
대료 상승, 원부자재 인상 등으로 가맹
점 운영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을 예상
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생을 이유로 가격을 올린 bhc와 B
BQ는 가맹점 납품 원부자재 가격도 올
렸다.

bhc는 원부자재 총 51개 품목 가격
을 평균 6.8% 올렸다. BBQ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신선육과 올리브오일·파우
더·소스·치킨 무 등 39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19.5% 인상했다. 포장용 쿠팡호일
의 공급가는 70%를 높였다. BBQ 측은
“본사가 비용을 부담하며 버텨왔지만



더는 감당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원재
료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주들은 “제품 판매 가격과 원
부자재 가격을 동시에 인상하면, 가맹
점주들의 수익은 줄고 본사 이익만 증
가하는 구조 아니냐”며 “가맹점주들의
수익 향상을 고려했다는 것은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수익성 악화와 경영의 어려움
을 호소한 것과 상반되게 치킨 프랜차
이즈 빅3 모두 지난해 실적 개선이 뚜렷
하게 나타났다. 지난해 매출 합산액은
1조3000억원을 넘었으며, 전년보다
12.70% 증가한 수치다.

이들 3사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수
혜를 입어 합산 매출 1조1826억원을 기
록했고, 2021년에는 1조3329억원을 달
성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교촌
치킨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도보다
13.22% 증가한 4934억, 영업이익은 2.
21% 감소한 279억원을 기록했다.

bhc치킨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19.15% 증가한 4771억원을, 영업이익
은 전년도보다 18.33% 증가한 1538억원
으로 집계됐다.

BBQ치킨은 지난해 3624억원으로
전년 대비 13.26% 증가했다. 영업이익

은 6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58% 증
가했다.

한 가맹점주는 “사상 최대 실적을 올
렸는데도 불구하고 치킨 가격 인상에
이어 원부자재 가격까지 올린 것은 소
비자들과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을 전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bhc의 사옥 이전 소식이 알려
지면서 소비자들과 가맹점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bhc는 6월 중 롯데월
드타워 19층으로 사옥을 이전한다. 롯
데월드타워는 뛰어난 접근성과 편의시
설을 자랑하는 만큼 임대료도 국내 최
고 수준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사옥 이전이
소비자가격 인상과 가맹점에 공급하는
원부자재값 인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냐
는 지적도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존 리(왼쪽) 홍콩 행정장관 당선인과 캐리 램 행정장관이 9일 홍콩 정부중앙청사에서 회담하고 있다. 존 리 전 정부부총리는 8일 치러진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 단독 출마해 당선됐다. /AP·뉴스시

홍콩, 중국화 가속... 동아시아 리스크 ↑

● 차이나 뉴스 & 리포트

행정장관 선거서 친중 인사 승리
중국-서방 간 갈등 더 부추겨

홍콩의 행정장관 선거가 중국과 서방
의 갈등을 부추기는 기폭제가 되고 말
았다. 홍콩의 중국화가 가속화 될 것이
란 우려와 함께 홍콩을 둘러싼 동아시아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홍콩 존 리 행정장관 당선인은 지난
8일 간선제로 진행된 선거에 선거인단
1428명 중 1416표를 얻었다.

리 당선인은 경찰 출신이다. 홍콩 국
가보안법으로 민주진영 인사 170여명
을 체포하는 등 중국의 홍콩 통제에 힘
을 실어왔고, 반정부 시위를 강경 진압
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콩 정부사장으로
승진한 바 있다.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잡음은 시작
됐다. 강경 친중 인사가 압도적인 득표
율로 당선되자 서방에선 ‘비민주적’ 이
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중국은 ‘내정간
섭’이라며 발끈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
보 정책 고위 대표는 선거 결과를 두고
“EU는 민주적 원칙, 정치적 다원주의
의 위배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번 선출 절차는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
제) 원칙을 해체하는 또 다른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번 행정장관 선거에는 새로운 제도

가 적용됐다. 먼저 1500명으로 구성된
선거위원회를 꾸리고, 출마자는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선거위원
회 위원을 재계·금융권과 노동·종교계,
지역조직 대표 등 각계각층에서 선출한
다지만 친중 성향이 장악한 것으로 알
려졌다.

중국 외교부 홍콩 주재 특파원공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 외국 정치인들
이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공공연히 어기고 홍콩 선거제도와 선거
결과를 폄훼한다”며 “중국 내정에 노골
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오히려 새 선거제도에 대한 자축이
이어졌다.

국무원 홍콩·마카오 관공실은 “새 선
거제도는 일국양제에 부합하고 홍콩 실
정에 맞는 좋은 제도라는 사실이 증명
됐다”고 강조했다.

리 당선인의 최우선 공약이 홍콩관
국가보안법 추가 제정 등임을 감안하면
홍콩의 중국화는 예정된 수순이다. 홍
콩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아시아 금융허브로서의 위상은 약화됐
고, 향후 서방과의 갈등은 심화될 가능
성이 커졌다.

국제금융센터는 “이번 선거가 과거
홍콩 사태와 같은 대규모 시위로 이어지
지는 않더라도 정치, 경제 등의 측면에
서 홍콩을 둘러싼 동아시아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0@

비트코인 일주일새 19% ↓... 3만달러 붕괴

코인마켓캡, 장중 2만9961달러 기록
2만8000달러 선까지 하락 전망도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세계 금융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도 타격을 받고 있다. 비트코인 가
격이 일주일새 19%나 폭락하면서 3만
달러가 붕괴돼 추가 하락 전망이 나오
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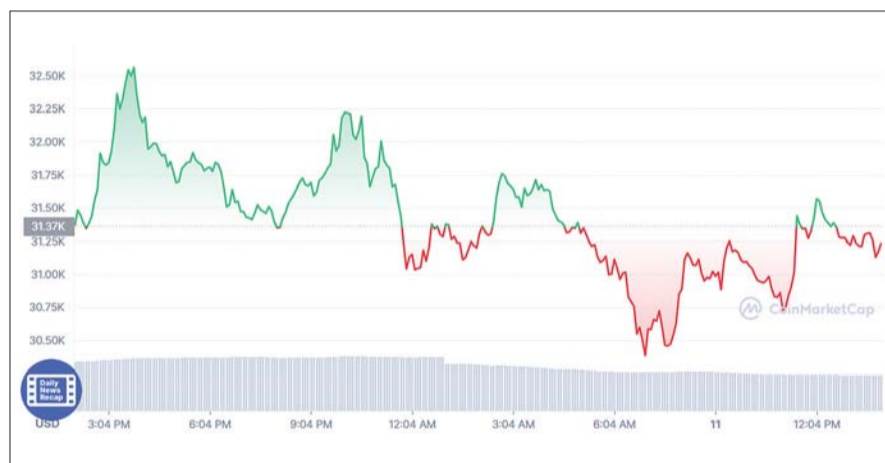
11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3만달러까지 하락하면서 일주
일새 19.37% 급락했다.

오전 장중 한때는 2만9961달러까지
하락해 3만달러가 붕괴되기도 했다. 비
트코인은 지난해 7월 21일(2만9526달
러) 이후 처음으로 3만달러 밑으로 떨어
졌다.

지난해 11월 10일(6만8790달러) 사상
최고가를 찍은 것과 비교하면 무려
57% 폭락했다.

비트코인 거래량은 191억3072만395
달러(약 24조3056억원)로 지난달 25일
167억7868만3768달러를 기록한 이후
최저치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말부터 하락하기
시작했고 올 들어 인플레이션과 미 통
화 긴축 정책, 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
벌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에서 이탈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장중 3만달러가 붕괴되면서 추가 하락 전망이 나오고 있다. /코인마켓캡

지난 4일(현지시간) 연준은 5월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금리를 0.75~1.00%로 50bp 인상
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50bp(1bp=0.01%포인트) 전격 인상했
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오는 6월과
7월에 빅스텝 추가 인상 가능성도 제기
했다.

이 같은 발표로 디지털 금이라고 불
리던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
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세계경제가 어
려울 때 위험자산의 가치는 평소보다
더욱 떨어진다.

올 초 장밋빛을 전망했던 전문가들도
현재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반등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3만달러가

붕괴가 일어난 시점에서 비트코인 가격
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피터 브란트 팩터 트레이딩 대표는 트
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이 3만2000달러
선을 깨고 2만8000달러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며 “가격 조정이 길어질 수 있
다”고 예상했다.

오안다(OANDA) 아시아-태평양제
프리 헬리 수석시장연구원은 “현재 상
태가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비트코인
가격이 2만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며 “리스크 심리가 계속해서 곤두박질
친다면 기술적 차트상으로 비트코인은
2만8000달러까지 내려간 뒤 그다음에
는 2만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
망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전자랜드, 지난달 에어컨 판매량 전년비 24% 급증

>> 1면 '기후위기에 몸살...유통가서 계속'

전자랜드도 이상기후에 계절가전 판
매량 급증을 경험했다. 전자랜드 또한
4월 한달 간 에어컨 판매량을 조사한 결
과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으며
2020년과 비교해서는 49% 상승한 것으
로 나타났다.

서둘러터 또한 같은 기간 전년 동
기 대비 40% 판매량이 늘었다. 뿐만 아
니라 2월에는 늦겨울 한파가 한 달간 이

어지면서 전년 동기 대비 온풍기는
86%, 전열기기는 42% 판매 성장했다.
전자랜드에 따르면 통상 2월이면 난방
가전의 판매량은 급격히 떨어지지만 이
상기후 현상으로 한파가 이어지며 높은
판매고가 이어졌다.

전자랜드는 지난해 12월 2021년 가
전 키워드로 ‘철없는 가전’을 꼽고 봄
철 장마와 같은 습한 날씨, 때이른 가
을 한파 등 잦은 이상 기후 현상으로
주요 계절에 집중 되던 가전 판매량

에 계절경계가 사라졌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프리미엄 상품
종과일이 각광받는데 여름과일에 집중
되는 경향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
다”며 “매년 판매 상품의 실적 추이나
품목 다양화를 통해 이상기후를 직접적
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상 기후 속에서
도 상품을 확보하고 판매할 방법을 계
속 연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